

목숨 걸고 폐지 줍는 노인들



잇단 무단횡단 교통사고 무방비
광주서 폐지 주워 길 건너던
60대 남성 차에 치여 숨져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인들끼리 경쟁도 치열
강력한 계도·안전교육 등 필요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총장로 3가에서 한 노인이 자전거에 폐지를 싣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4일 새벽 4시 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단 인근 왕복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A(69)씨가 달리던 쇼나타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의 손에는 폐지가 들려 있었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에서도 왕복 5차선 도로 중앙차선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할머니 옆을 스쳐

듯 '쌩'하고 빠르게 지나쳤다. 차들이 지나자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폐지가 잔뜩 실린 유모차를 끌고 도로를 건넜다.

할머니에게 "위험하게 왜 무단횡단을 하시나?"고 묻자 "건너편 도로에 폐지가 있다. 빨리 가서 줍지 않으면 땐 사람이 가져가버린다. 마음이 급하다"고 답했다.

폐지를 줍기 위해 길거리로 나선 노인들 이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무단횡단을 서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경제불황이 이어지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사고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이들에 대한 현황파악은 물론, "뚜렷한 방

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TASS)에 따르면 광주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인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는 2016년 283명에서 2017년 273명, 2018년 20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년간 사망자 수는 66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만 매년 평균 254명의 노인이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고, 22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얘기다.

폐지 1kg당 가격은 40~70원으로, 노인들이 하루 100kg를 줍는다고 해도 손에 들

아가는 돈은 겨우 5000원 남짓이다. 이 때

문에 폐지를 줍기 위한 노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단횡단 등 사고위험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폐지를 줍는 노인 지원과 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인 '손수레 금수레'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노인들이 폐지를 주워오면 무게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172명이 참여 중이다. 하지만 노

인들이 고물상이 주는 폐지 값에 따라 구청이 추가로 활동비를 주는 뒷에, 폐지를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무작정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시정과 구청의 노인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1년에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과 수원, 청주 등 타지역은 폐지 줍는 노인의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찾고 있는 것과 달리, 광주시는 현황과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노인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임에도, 지나친 응징주의에 강력한 계도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광주지방경찰청의 무단횡단 단속 건수만 봐도 2017년 2만 4881건에서 지난해 2702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올해 10월까지 267건으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노인 복지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교육·계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백승원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과장은 "노인의 경우 순발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무단횡단시 사고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복지예산을 늘려 길거리로 나오는 노인을 줄이고, 강력한 계도와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씨 강제 귀국 착수

4중 추돌사고…6명 부상

경찰,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

줄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를 강제 귀국시키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비안전과는 윤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관계부처를 통해 윤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다. 윤씨에 대한 적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BTS 정국 교통사고 조사

경찰 "음주운전은 아니다"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용산경찰은 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이 지난달 서울시 용산구에서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벌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택시 기사와 정국이 상처를 입었으며, 조만간 정국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국 측과 일정을 맞춰 경찰서에서 조사할 계획"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광정 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9타경 5473	1	서구 시청로 13, 5층 522호 [지평동, 삼무리 아파트]	77,000,000			
2019타경 5855	1	광주 구 도산동 1298-3 삼각교동아파트 101 [아파트]	82,000,000			
2019타경 7172	1	구 도로 708호 7층 69.69㎡ [아이파크아파트]	150,000,000			
2019타경 7936	1	나주시 낙동면 강변로 209, 104동 11층 110 [아파트]	194,000,000			
2019타경 8007	1	복구 설로 370번길 1, 101동 2층 205호 [아파트]	83,000,000			
2019타경 8472	1	복구 두동로 456-1 예상 1층 102호 65.76 [아파트]	92,000,000			
2019타경 8472	1	복구 임명대로 1020, 202동 4층 401호 [아파트]	330,000,000			
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9타경 4128	1	복구 오지동 965-5 116.5㎡ [서로 1층 2층 80.02㎡, 단독주택]	116,661,280	일괄매각, 제시외 보증금을 벌어온 1층 20.12㎡	555,417,600	보내건물은 현황 555,418,000원
2019타경 63189	1	장성군 북이면 죽령리 355 400㎡ [정수현지 2분지 1부분]	18,896,470	일괄매각, 제시외 보증금을 벌어온 3-3,3-4㎡, 단독주택	18,896,470	서구 노동성 144.6㎡ [사무소] 5층 989㎡ [정수현지 2분지 1부분]
2019타경 67068	1	남구 맥문로 17번길 17 1층 84.06㎡ 2층 55.3 [단독주택]	42,312,2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소지분에 속하는 7.74㎡ [물건번호1: 매각재 입원제사와 외관을 1층 20호 12.6㎡]	12,000,000	구상 12.05㎡ [상가] 1층 12.05㎡ [상가]
1. 연립주택, 다세대/빌라						
2019타경 4234	1	서구 화정로 49번길 38, 3층 303호 [쌍촌동 다세대]	63,000,000			
2019타경 7097	1	동양군 우정면 성도리 633-3 301㎡ [대]	27,090,000			
2019타경 7479	1	동성군 풍수면 698-7 100㎡ [전]	3,500,000			
2019타경 7813	1	서구 화정동 368-102 542㎡ [도로]	147,424,000			
2. 대지/임야/전답						
2019타경 69224	1	동 592호 [남성동, 부영사랑으로] 등록번호: 366-2474 차명: 스파크 연식: 2012	2,210,000			
2. 대지/임야/전답						

● 콤팩트 매각 조건

● 경찰, 인터폴 체포영장 제출

● 경찰, 인터폴 체포영장 제출</p